



사진: 안식일 오후, 담소를 나누는 동아 지부 회원들의 모습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서울 스테이크 중앙 농아 지부

농아 지부 또는 와드는 농아인(聾啞人)을 위한 특별 단위 조직이다. 국내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중앙 농아 지부가 유일하며, 매주 신당 와드와 함께 사용하는 건물에서 안식일 모임을 갖는다. 중앙 농아 지부 회원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살고 있으며,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의 거리를 여행한다.

신당 와드 회원이었다가, 2015년 3월에 중앙 농아 지부 회장으로 부름받은 박수홍 형제는, “먼 곳에서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안식을 맞이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교회를 다녔구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좀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이사야 58장 13~14절을 인용하며, 안식일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사야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말했다를 때, 그는 또한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 하여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중앙 농아 지부 회원인 김병수 형제의 말로 잘 설명된다. “교회 표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식일이 참 좋습니다. 세상은 불순한 게 많지만 교회는 깨끗하고 성결해서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수홍 형제가 부름받기 전까지 오랜 기간 중앙 농아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이길용 형제도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 마음이 정화되어서 기쁘다고 말한다. 중앙 농아 지부 회원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며, 넬슨 장로가 말씀한 ‘여호와 안에서

어릴 때 저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행동과 태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을 경전에서 배웠습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은 더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안식일에 대한 사랑이 싹트며, 안식일에 대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옵니다. 성스러운 안식일은 진실로 즐거운 날입니다.

러셀 엠 벨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
129~132쪽

얻는 즐거움”의 좋은 모범이 된다.

침례받은 지 2년이 되어 가는 김명철 형제는, 안식일이 어떻게 ‘즐거운 날’이 되는지 이렇게 전했다. “세상에서 혼란스럽고 힘든 삶을 보낼 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 공부와 안식일 모임을 통해서 제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깃들었고, 마음가짐이 변화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느끼는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가 제겐 큰 즐거움입니다.”

매주 일요일 먼 거리를 여행하여 교회에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일요일에 중앙 농아 지부 회원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안식일을 고대해 왔다는 것과 안식일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성찬식과 기타 일요 모임을 함께하고, 모임이 끝난 뒤에는 교회에서 함께 시간을 내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안식일의 즐거움을 찾고 서로를 알아 간다.

중앙 농아 지부 회원들에게, 이처럼 매주 모여 서로와 복음에 대해 이야기 하는 안식일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 가고 신앙을 키우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중앙 농아 지부의 박상우 형제는, “교회에 오면 친한 사람도 많고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 복음을 배우는 자체가 제겐 큰 기쁨입니다.”라고 말하며, 추연수 형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있다며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선교 사업을 하는 데에서 안식일의 즐거움을 느낀다.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기쁨이며, 친구들을 통해서 저도 더 큰 신앙심이 생깁니다.”

중앙 농아 지부 회원들은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 또한 기쁨이라고 말하며, 구도자들을 꾸준히 교회로 초대한다. 또한, 지금 함께하는 구도자들이 침례의 물가로 다가서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복음을 수화로 가르칠 수 있는 회원들이 늘어서 구도자에게 복음의 더 많은 것들을 알려 주길 바라고 있다.

홍성애 자매는, “농아 지부도 더 많은 자매들이 모여 상호부조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최근에 자매들이 많아져서 수화를 나누고 우정을 키울 수 있어 기뻐요.”라고 말한다. ■



중앙 농아 지부 회원들



사진: 류채린 자매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가족

우리 가족의 개종과 변화

오이가 피클이 되는 과정처럼,
우리 가족도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류채린 자매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

십 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께서는 오이가 피클이 되는 과정을 비유로 들어 개종의 과정에 대해 말씀하셨다. 오이가 피클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준비 절차,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 중탕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한편, 개종은 피클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복음에 잠겨 충만해지고, 의식과 성약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서서히 영적으로 거듭나며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우리 가족의 개종 과정을 생각해 보았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아빠와 둘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은 조금 허전했다.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빠와 난 매일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다. 곧 엄마와 동생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교회 모임에 관심을 보였다. 쉽게, 신속하게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와 동생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기쁨과 행복감을 느꼈다. 이제는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에 간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우리 가족의 모습도 변화되었다. 예전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조용했던 예전과는 달리 장난을 치기도 하고, 좀 더 서로를 위하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전히 나는 어리고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충실히 따르고 내가 맡은 일을 꾸준히 잘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

이 기사는 청년 류채린 자매가 와드 성찬식 모임에서 말씀한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회장: 김현우 형제(전임: Joseph K. Choi)

대전 스테이크

세종 지부가 유성 와드에서 분리되어 새로 조직됨
세종 지부 회장: 이용직 형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회장: 김현수 형제(전임: 민해기 형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회장단 1보좌: 이현수 형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회장단 2보좌: 한승룡 형제
이문 지부 회장: 최명엽 형제(전임: 한승룡 형제)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감독: 김정기 형제(전임: 권용건 형제)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13명 / 장로 11명

새로 부름받은 봉사 선교사

자매 1명 / 장로 1명



박진환 장로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대전 선교부



권도영 자매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캘리포니아
롬비치 선교부



김광균 장로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
서울 남 선교부



김민지 자매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템플스퀘어 선교부



김수지 자매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부산 선교부



김수연 자매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이혜수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서울 성전



김지연 자매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서울 선교부



김혜령 자매
남 스테이크
서초 와드
부산 선교부



선호진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대전 선교부



양인영 자매
서울 스테이크
원당 와드
부산 선교부



양재영 장로
서울 스테이크
원당 와드
대전 선교부



윤기열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선교부



정현석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자립 지원 서비스



윤미소 자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대전 선교부



이영비 자매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템플스퀘어 선교부



이제현 장로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서울 선교부



이진현 장로
전주 스테이크
정음 와드
서울 선교부



이하연 자매
서울 스테이크
금촌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장경진 장로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부산 선교부



정은은 자매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서울 선교부



정의건 장로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조경우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캘리포니아
에너하임 선교부



최강섭 장로
미군 지방부
북 지부
대전 선교부



염경희 자매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서울 성전



이장순 자매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서울 성전

대전 스테이크 세종 지부 탄생

대한민국 행정 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 지부가 조직되었다.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에서 세종 지부가 분리되기까지, 여러 지도자와 성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10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 대전 스테이크 김웅조 회장의 감리로 세종 지부의 역사적인 첫 성찬식 모임이 열렸다. 초대 지부 회장으로 이용직 형제, 지부 회장단 1보좌에 이재희 형제가 부름받았다.

말씀 순서에서 이용직 회장은, “저는 언변이 서툴지만,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업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라며 세종 지역에 시온을 세우는 사명을 함께할 것을 독려했다. 대전 스테이크 김웅조 회장은, “참된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진리가 이 지역 백성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가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기쁨을 받으며 생활하고, 생명수를 통해 이 세상을 결코 목마르지 않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모임에는 구도자, 스테이크 역원을 포함하여 50여 명이 참석했다. ■

서울 및 서울 남 협의평의회 지역 자립 컨퍼런스 2015

지난 9월 20일 일요일 오후,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자립 컨퍼런스 2015'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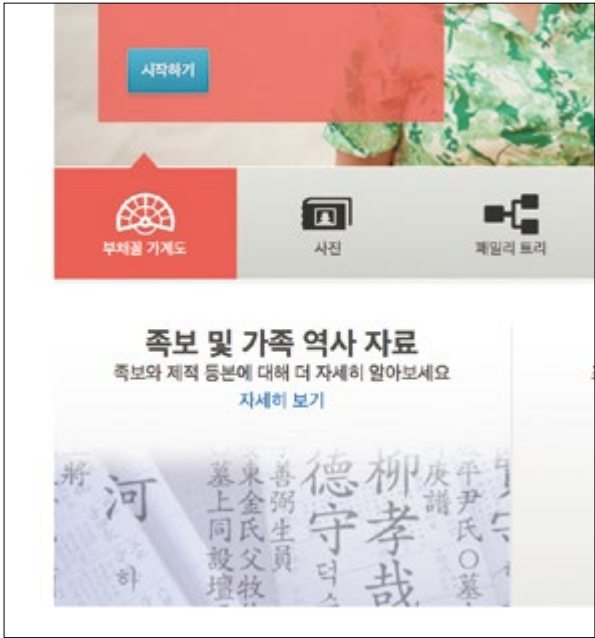
서울 경인 지역의 스테이크 회장, 자립 위원장, 자립 담당 고등평의원, 자립 전문가, 감독 및 지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칠십인 구승훈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회장인 이인호 형제, 수원 스테이크 자립 담당 고등평의원인 남경현 형제, 자립 지원 서비스의 조현석 형제 등이 연사로서 말씀했다. 이인호 회장은 과거 자립을 위해 애쓰던 시절을 진솔하게 나누며, “자립을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을 갖는 것이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행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말씀 시간은 서울 경인 지역 워크숍 수료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날 총 4명의 청년이 수료증을 받았다.

말씀 후에는 분반하여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 동안, 지도자들은 회원들의 상황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회원들의 자립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며,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했다. 지난 1년간 구체화된 지침에 따라, 자립 지원 서비스의 조현석 형제가 교회의 지원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상세히 답했다. ■



위 사진: 수료식, 아래: 자립 컨퍼런스에 참석한 지도자들의 모습



FamilySearch.org 홈 화면에서 '족보 및 가족 역사 자료'를 클릭



족보를 찾는 것부터 읽는 방법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다.

한국인을 위한 가족 역사 자료 족보 및 가족 역사 자료 활용 안내 동영상

한 국 성도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데 족보가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족보를 구하거나 읽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일이다.

교회 가족 역사부(한국)에서는 족보와 제적 등본에 대한 훈련 동영상을 제작했다. 10편의 훈련 동영상을 통해, 족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자세히 안내된다. 각 동영상에는 족보를 찾는 방법, 읽는 방법, 한자를 찾는 방법, 연대를 환산하는 방법,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이란 무엇이며, 국내와 해외 거주자가 제적 등본을 신청하고 받아보는 방법 등이 담겨 있다.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가족 역사 홈페이지 'Familysearch.org(패밀리 서치)'에 접속하여, 화면 하단 왼편에 위치한 족보 및 가족 역사 자료 부분의 '자세히 보기'를 클릭한다(위 왼쪽

화면 사진 참조). '한국의 가족 역사 자료' 페이지로 연결되면 원하는 영상을 선택한다.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게시된 동영상 목록

- 족보 소개(5분)
- 족보 찾기(2분 53초)
- 족보 읽기(6분 3초)
- 직계 조상 찾기(4분 1초)
- 족보 한자(7분 15초)
- 한자 찾기(5분 3초)
- 연대 환산(6분 44초)
- 호적등본과 제적등본(4분 7초)
- 제적 등본 신청(3분 7초)
- 해외 거주자 제적등본 신청(4분 24초) ■



1959년 부산에서 찍은 사진, 유진 피 털 장로(뒷줄 가운데)와 배수열 형제(앞줄 왼쪽)가 보인다.

부산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노력

부산은 1955년 8월 5일¹⁾, 한국 헌법 후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가 이 땅에 최초의 지부를 조직한 곳이며, 그 이전에도 군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해롤드 비 리 장로가 방한해 이 땅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곳이다. 선교사 도착 후, 앤드리스 선교부 회장과 파웰 장로가 주고받았던 편지를 통해 모든 것이 어렵고 새롭던 그 당시를 느껴 본다.

“저는 여러분의 부산 방문에 대한 보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기 전에 그 보고를 이미 보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산의 상황이 서울보다는 더 열악하다는 제 의견에 여러분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울여름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부산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폴 시 앤드리스 북극동 선교부 회장이 파웰 장로에게, 1956년 5월 16일 자 편지)

“여러분의 부산 방문에 대해 서면 보고를 드디어 받을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 울여름 내로 한국에 선교사를 네 명 더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두 달 아니 몇 달 뒤에도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서울과 부산에

각각 네 명의 선교사를 두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배치는 선교사들이 봉사하는 도시마다 네 명의 선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앤더슨 장로와 김볼 장로를 기존의 두 선교사와 함께 서울에 배치하고, 나중에 네 명의 선교사를 부산에 추가 배치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일에 대해 장로님의 의견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가능한대로 서둘러 네 명의 선교사를 더 보내겠습니다.

5월 30일에 제일회장단에 서한을 보내 부산의 상황을 설명하고 부산 숙소를 임대하는 데 필요한 미화 2,000달러의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장로님께 이런 목적으로 2,000달러를 송금하는 것을 승인하는 전보를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제일회장단에게 승낙을 받을 때까지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 총관리 역원의 소식이 있는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앤드리스 회장이 파웰 장로에게, 1956년 6월 15일 자 편지)

“부산에 거처를 임대하는 데 필요한 돈을 확보해서 선교사들이 당장이라도 내려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 기쁩니다. 데튼 장로를 그곳으로 보내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곳 한국 생활에 대해 제법 배웠는데, 새로운 두 선교사를 부산으로 보낸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반면, 데튼 장로가 내려간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훨씬 더 빨리 배우고 잘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돈이 도착하는 대로 김 박사과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숙소를 찾아보고 구매할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소를 임대할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데튼 장로와 앤더슨 장로를 가급적 빨리 내려보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고 싶습니다. 김볼 장로와 저는 이곳 서울에서 전도하면서 두 선교사가 새로 도착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파웰 장로가 앤드리스 회장에게, 1956년 6월 28일 자 편지) ■

주
1. Church News, 1955년 9월 10일, 13면. 날짜는 기사 내용에 따라 헌남일로부터 기산함



부천 와드 새로운 집회소의 예상 영토 모습

부천 와드 기공식

주님의 자녀들을 담을 새로운 그릇

부천 와드의 새로운 집회소가 건축된다. 주님의 축복과,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마침내 새로운 부천 와드 건물의 기공식이 열렸다. 지난 10월 3일 오전, 지역 칠십인 구승훈 장로의 감리로 부천 와드 기공식을 위한 영적 모임이 부천 와드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 자리를 옮겨 새로운 집회소 건축 부지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위트니스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영적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서, 서울 서 스테이크의 이인호 회장, 부천 와드 선영필 감독, 관리 본부 건축과의 서정욱 형제, 구승훈 장로 등이 연사로서 말씀했다. 구승훈 장로는, “무엇을 주셨는가보다 왜 주셨는가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하며, “앞으로 지어질 부천의 교회 건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서울 서 스테이크 성도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담을 그릇으로 이 교회 건물을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장소를 옮겨 진행된 기공식에서, 리본 커팅식과 시삽식이 이어졌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박화자 자매는, 오래전 부천 와드의 첫 집회소가 건축될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현재 예배를 보고 있는 부천 와드 건물의 준공식이 기억납니다. 당시,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부천 와드의 발전을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벅찬 마음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천 와드의 새로운 교회 건물은 넓은 주차장과 함께 지상 2층의 건물 규모로 설계되었다. 공사는 내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부천 와드 회원들의 시삽 참여 모습